

지방공무원 상담지원제 운영

전북교육청, 심리·정서적 안정 돕기 위해... 직무 스트레스·정서 문제 등 상담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상담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개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에게 전문상담을 제공해 정신적 고충을 해소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상담내용은 과다한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상사·후배 등 구성원 간의 조직 내 관계 갈등,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문제 등 가족문제, 대인관계·개인성격 및 정서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사전예방 차원으로의 상담 진행도 가능하다.

상담유형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나눠 진행되며, 연중 상시 신청도 가능하다. 개인상담의 경우 개인이 직접 상담 및 진료기관에 전화로 신청한 뒤 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집단상담은 심리치료가 필요한 부서나 기관에서 전북교육청 총무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상담기관을 연계해 준다. 상담지원 횟수는 개인상담은 1인당 연간 10회, 집단상담은 연간 4회까지 가능하다.

상담기관은 전북상담학회 소속 기관 등 51개소, 진료기관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등 32개소, 알코올중독 예방 등 전문의부기관 4개소 등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책자를 만들어 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조철호 총무과장은 “공무원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통해 안정적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학 중 무임금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학 중 무임금, 현대판 보릿고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무임금 문제 대책 마련해 낼 것”
28일 서울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참가 선포도

“방학 중 무임금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참가를 선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1년 중 3개월이 방학이라는 이유로 무임금이다. 한 해를 아홉 달의 월급으로만 지내야 한다. 한

달 월급을 쪼개고, 거기서 또 쪼개 써야 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방학이라는 현대판 보릿고개가 존재하고 있다”며 “방학이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는다는 교육당국의 논리에는 전쟁 중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인도주의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갖춰야 할 휴머니즘 따위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학 중 무임금은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1년 중 3개월은 마땅

히 끊어 죽어도 좋다는 교육당국의 선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전북지부는 “방학 중 무임금 대책으로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심화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타파를 위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만 조합원과 함께 학교 급식 노동위기와 방학 중 무임금 문제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낼 것”이라며 “오늘 6.2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오는 28일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6급 지방공무원

공동정책연구 세미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25일 6급 지방공무원 공동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6급 핵심인재 양성 7기’ 교육과정에서 추진한 공동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실무 중심의 정책 대안을 모색·공유하는 자리였다.

공동정책연구는 △학생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기관 통합 방안 △전북형 교육특례 발굴과 추진 방안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정책 방향 설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 행정의 실행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를 다뤘다.

민완성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교육과정에 도출한 결과물을 현장과 연결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현장의 행정 실무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며, 실행력까지 갖춘 역할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취임식이 25일 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취임식 개최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협) 이·취임식이 25일 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임원진을 비롯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 국주영은·이병철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학운협의 시작을 축하했다.

윤미연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활동지원단을 상시 운영하고, 협의회의 전반적인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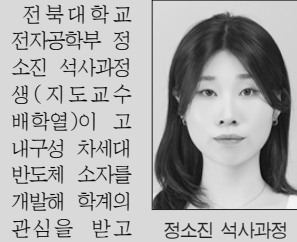
동과 향후 계획을 위원장들과 꾸준히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김정기 교육장은 “전주교육지원청은 언제나 학운협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학운협이 교육 발전을 함께 이끄는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반도체 소자 ‘주목’

전북대 정소진 석사과정생, 차세대 3D DRAM용 고내구성 반도체 개발



정소진 석사과정



배학열 교수



이기영 교수

25일 전북대에 따르면 정 석사과정생은 n-type 산화물 반도체인 α-IGZO(Amorphous Indium Gallium Zinc Oxide)를 기반으로 고내구성 반도체 소자를 개발했다. 개발된 소자는 우주 환경 등 극한의 환경에서도 반도체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차세대 우주항공 분야와 같은 극한 환경용 반도체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배학열 교수 연구팀과 홍익대학교 이기영 교수(신소재공학부) 연구팀의 공동 연구로 진행, 세계 최고 수준의 나노소재 전문 저널인 'Nano Letters' 최신호(Q1, JCR 상위 10% 이내)에 게재됐다. 특히 차세대 3D DRAM에 적용 가능한 α-IGZO 소자의 방사선 열화(劣

化:성능이 저하되는 현상) 메커니즘과 성능 복구, 그리고 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도체 박막의 입계 두께를 세계 최초로 발견해냈다는 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우주 환경 등 극한의 환경에서도 반도체 소자가 금세 성능을 회복하고, 방사선에 강한 내방사선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α-IGZO 반도체는 높은 이동도와 낮은 누설 전류, 그리고 박막 증착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디스플레이용 트랜지스터로 널리 상용화돼 있다. 최근에는 수직적층 구조가 핵심인 3D DRAM 셀 트랜지스터 적용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분야의 넓은 밴드갭과 높은 항복 전압 특성으로 인해 극한 환경, 우주항공 분

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

이번 연구에서 전북대 연구진은 α-IGZO 반도체가 감마선, 알파선, 양성자 등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결함에 주목했다. 누적된 감마선 선량(TID)에 의해 산소와 금속 결합이 끊어지고, 이 때 생성되는 결함 증가로 반도체 소자의 성능이 저하됨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기적 및 열적 어닐링 기술을 통해 소자의 성능을 초기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실험으로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α-IGZO 반도체의 두께에 따른 전기적 특성과 방사선에 의한 열화의 상관관계를 통해 특정 두께에서 내방사선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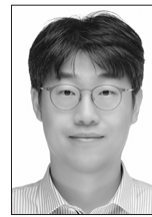
배학열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술 성숙도가 높은 α-IGZO 반도체 소재를 활용해 와이브랜즈급 소재 기반 고내구성 반도체 소자를 개발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α-IGZO 반도체 소재가 차세대 DRAM 셀 트랜지스터 적용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디지털 휴먼·협업형 로봇 위한 피지컬 AI 제어기술 개발 착수

전북대 김성찬 교수팀,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선정



김성찬 교수



송현제 교수



이경수 교수

전북대학교 김성찬·송현제·이경수 교수 연구팀(컴퓨터인공지능학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기초연구실 지원사업(BRL)’ 심화형 신규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전했다.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소규모 연구그룹을 지원해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형 R&D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김 교수팀은 향후 3년간 총 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디지털 휴먼 및 협업형 로봇을 위한 피지컬 AI 기반의 상황 적응형 지능 제어 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사람과 로봇이 실제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협력하는 미래 지능형 시스템을 상용화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전하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피지컬 AI 제어 기술 개발이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 환경에서 강화학습과 제어 이론을 통합한 고신뢰성 제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휴먼의 자연스러운 동작 생성과 협업형 로봇의 실시간 적응 행동 구현에 나선다.

김성찬 교수는 “디지털 휴먼의 정밀한 신체 모델과 로봇의 물리 제어 기술을 융합해 피지컬 AI의 실질적 구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스마트 제조, 재활 의료, 실감형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 가능한 지능형 휴먼-로봇 협업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전국 고교생
문에 백일장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제27회 전국 고교생 문예 백일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7월 31일까지다.

응모 부문은 운문부(시 3편)와 산문부(수필 1편)로, 주제는 자유다. 산문부 수필은 A4 용지 기준 2매 내외,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작성해야 한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응모 작품을 이메일(jnsok0815@nate.com)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시상 내역은 △장원(운문부·산문부 각 1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차상(각 1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차하(각 2명, 상장 및 상금 10만원) △장려상(각 10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2만원) 등이다. 특히 장원 수상자가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할 경우 1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의 특전이 주어진다.

주지영 문예창작학과장은 “전국 고교생들의 창의적인 문학적 재능을 발굴하고 응원하기 위해 매년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백일장이 문학을 사랑하는 고교생들에게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치고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043-531-280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행정업무 효율성 UP... 데이터취합 사용자 교육

전북교육청, 교직원 60여명 대상... 교대통 시스템 이해 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미래 교육연구원에서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하 교대통) 데이터취합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대통’은 분산된 교육행정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 연계 및 분석해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교육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교육은 분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근무자 중 희망 교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교대통 주요 기능 안내 △데이터취합 활용 사례 △서비스 관리 기능 활용 교육(서식 생성, 배포 방법, 데이터 입력 및 집계 결과 확인) 등이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교대통 데이터취합 활용 교육을 통해 행정 업무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